

시

통화음이 길어질 때

진혜진

포도에서 만납시다
머리와 어깨를 맞댄
돌담을 돌면 포도밭이 있다
맛이고 흔적인
우리의 간격은 포도송이로 옮겨가고
담장을 타고 오르는 담쟁이처럼
지지대를 타고 몸을 쌓는다
씨를 품는다
우리는 서로 기댄 채 손끝이 뜨거워지고
포도는 오래 매달릴수록 그늘의 맛이 깊어진다
입꼬리 올린 갈림길마다 가위눌린 꿈에서
쓴맛이 돈다
포도는 입맞춤으로 열리고 선택으로 흩어진다
바둑판 위에서 반집을 지키는
흑백의 돌처럼
우리는 내려올 수 없는 온도
피가 등글어진다
언젠가 통화음이 길어졌을 때
그것이 마지막 고별이라는 걸 알았고
덩굴인 엄마가 옥신거려
그해 포도 씨는 자꾸만 씹혔다
깨물어 버릴까
한 팔이 놀리고 한 다리가 불편인 잠버릇이 생긴 곳
자유로를 지나 수목장 가는 길 포도 알맹이를 삼킨다
하나의 맛이 두 개의 흔적을 낸다
단단히 쌓은 담을 나는 한 알 한 알 허물고 있다
탐이 물경하다

시 부문 당선 소감



진혜진
▲1962년 경남 함안 출생
▲경희사이버대
미디어문예창작학과
재학 중

“이제 시와 오롯이 동거하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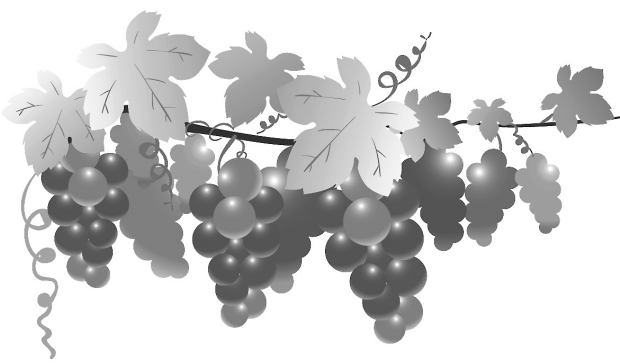
마음을 비워야지 하면 욕심이 났다. 욕심을 비워야지 하면 적막이 났다. 시의 여정이 그러했다. 이번에는 그래 이번에는...
언제부턴가 도서관 계단을 세는 버릇이 생겼다. 송이에서 포도를 한 알 두 알 빼 먹듯이.

통화음이 길어질 때 포도송이에서 저를 떼어내주신 심사위원님들과 광주일보 신문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상상력을 지지해주시고 충고와 격려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얼굴 모르는 구성원이 되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경희사이버대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리며 나의 당선을 기원하며 촛불을 밝혀주신 분들과, 마음을 모아준 친구 시인들, 그리고 스테디 선배님들, 일일이 이름 거론하지 않아도 제 마음 속에 각인 되어 있는 것 아시죠?

저녁 무렵에 걸려온 전화 한 통화. “여보세요 혹시 진혜진 씨 아니가요?”

이제 시와 오롯이 동거하기로 한다.



시 부문 심사평



신형철
▲서울대 국문과 및
동대학원 졸업
▲‘문학동네’ 편집위원
▲조선대 문예창작과 교수
▲작품집 ‘물라의 에티카’
등 다수

“만남과 헤어짐의 진부한 사건
포도의 이미지로 생기를 얻다”

시는 가끔 속인다. 속이는 주체는 시 자체다. 쓰는 사람도 속이는 줄 모르고 속이고, 읽는 사람도 속는 줄 모르고 속는다. 시가 때로는 쓰는 사람을 초과하고 읽는 사람을 홀릴 때가 있다는 것, 그것이 시의 위력이자 위험이다. 그러나 단 한 편의 수작만으로는 시인을 믿을 수가 없다. 그것이 시인이 아니라 시 자체의 능력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상현 씨의 ‘기다리는 여자’와 5편은 체험과 관찰에서 서정적 순간들을 이끌어내는 기예가 능숙했다. 이복 씨의 ‘빙하기의 식사’와 2편은 부드러운 묘사와 딱딱한 진술을 교차하는 능력이 강점이었다. 이서영 씨의 ‘암전’와 4편과 이재민 씨의 ‘두근두근 동물원’와 4편은 삶의 내막을 투시하는 시선이 깊다는 점이 닮았다. 전자의 ‘10년 후’와 후자의 ‘간지’ 같은 작품은 어느 앤솔로지에 포함되어도 손색없을 수작이었다. 장수연 씨의 ‘나무의 표정을 빌리다’와 3편은 화술의 나이가 젊은데 특히 ‘비날하우스’의 발랄한 상상력이 인상적이었다.

이분들에게서는 가장 좋은 시 한 편을 선포 골라낼 수 있었다. 그러나 김기숙 씨의 ‘선잠’와 3편과 진혜진 씨의 ‘먼지의 결혼식’와 4편의 경우는 그럴 수가 없었다. 김기숙 씨는 감정을 냉철하게 통제하고 정교한 언어의 구조물을 만드는 일에 실패가 없었고, 진혜진 씨의 작품들 역시 발상과 화술에서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었다. 이 점이 오히려 두 사람을 주목하게 만들었다.

이중 진혜진 씨의 작품, 특히 ‘통화음이 길어질 때’가 선택된 것은 심사자의 취향이 개입한 결과다.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진부한 사건이 포도의 이미지로 생기를 얻는 장면들이 아름다웠다. 진혜진 씨에게 보내는 축하만큼의 진심을, 김기숙 씨에게 보내는 위로에도 담고 싶다.

동화 부문 당선 소감



황성진
▲1988년 경남 마산 출생
▲고려대 세종캠퍼스
미디어문예창작과 졸업

“등불이 되어준 이들에게 작품으로 보답”

“감사합니다!”
가장 강렬하게 떠오르는 말은 아무래도 감사의 말입니다. 말로는 부족한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나마 전합니다.

문학의 꿈을 안은 지 9년 차. 껌껌한 내일을 맞이하기 싫어, 그냥 눈을 감아버린 날도 많았습니다. 가슴 먹먹한 그 시간 속에서도 결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은 등불처럼 길을 지켜준 이들 덕분입니다. 언제나 지켜봐주고, 응원해주고, 기다려준 모든 분들께 다시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아동문학의 길을 알려주시고 끝까지 제자를 믿어주신 이옥수 작가님과 관악구 곳곳에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어린 제자님들, 고맙습니다!

지난 2년, 좋은 기회가 닿아 문학 강사 ‘너구리’라는 이름으로 아이들과 문학으로 어울렸습니다. 문학이라는 장난감으로 신나게 놀고, 그 속에서 꿈·자유·희망·자신감·용기를 아이들의

가슴에 심어주는 선생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이들 가슴에 심고 싶었던 씨앗들을 돌이켜봅니다. 다만 씨앗을 심는 것으로 끝내진 않았는지, 제 곁에 등불로 있어준 이들에게서도 아이들에게 등불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작가, 그것도 동화작가가 된 저는 앞으로 아이들의 길을 지키는 등불이 되고자 합니다. 재미있고 신나는 동화를 통해 아이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세상을 보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이 많은 친구이자, 가슴에 남는 든든하고 따스한 등불 같은 작가로 함께 놀 시간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덧붙여 제가 선택한 이 길이 지금까지 등불이 되어주신 분들에게 올리는 최고의 감사 인사가 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작품을 창작하는 동안 아낌없는 질책과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김은정 씨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당신의 칭찬에 춤출 수 있었습니다.

동화 부문 심사평



이성자
▲명지대 문예창작과
박사과정 졸업
▲96년 동아일보 신춘문에
등단
▲계몽아동문학상
방정환문학상 등 수상
▲작품집 ‘너도 알 거야’
‘손가락 체온계’ 등 다수

“이야기 짜임새 탄탄하고 반짝이는 문장 감칠맛”

예심을 거쳐 올라온 동화 15편중에서 3편을 최종심에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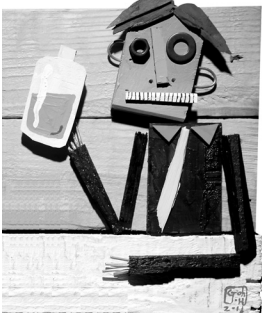
‘소나무에 새긴 이름’은 한센병의 부모를 둔 오누이가 훗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다시 소록도를 찾아와서 지난 시간을 회상하는 내용이다. 소재나 주제의 참신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쉽게 내려놓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겪어야 했던 아픈 이야기가 주는 감동의 힘이였다.

‘시암마을의 새불이’는 시암마을 정자에 버려진 아이를 노인정에서 할머니들이 키우게 되는 데, 아이의 울음이 사라진 마을에 되살아난 아이 울음소리는 선자의 마음까지 설레게 했다. 그러나 인물들의 역할이 불분명했고, 갈등이 미흡한 게 흠으로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오렌지 주스를 따르는 방법’은 이야기의 짜임새가 탄탄했고, 인물형상화에 성공한 작품이다. 군데군데 반짝이는 문장도 동화의 감칠맛을 더해주었다. 아이들에게 맨날 엉터

리라고 구박받으면서도, 반 아이들과 함께 1.5리터의 오렌지 주스 한 병을 따르며 진정한 배려와 공평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인간미 넘치는 선생님과 구김살 없는 아이들 모습이 사랑스러워 당선자의 자리에 올려놓는다.

탈락한 응모자들 모두는 더욱 분발하여 내년을 기억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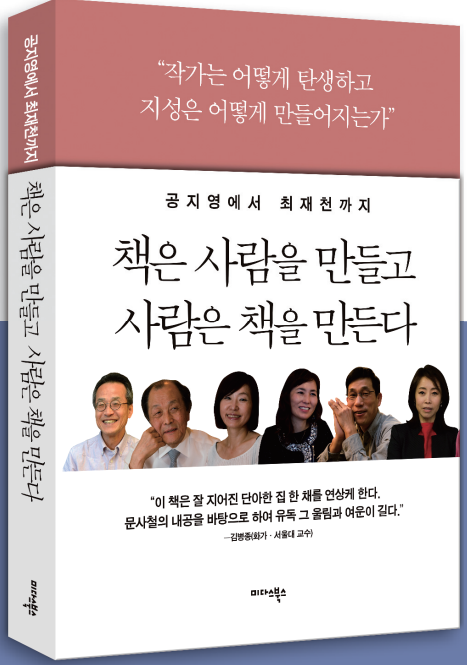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

공지영, 조정래, 유시민, 정호승, 최재천, 김병종 등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 23인이 말하는
책이 삶을 빛나게 하는 순간들!



“저자의 지혜가 끝나는 곳에서
우리의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이 독서다”

미디어북스 박성천 지음 | 320쪽 | 22,000원



/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이 털어놓은 책과의 인연! 자신만의 색깔로 책을 짓는 작가들과 문화예술가 23인의 내밀한 고백을 한데 모았다. 책은 작가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고, 또 그로 인해 그들은 어떤 작품을 쓰게 되었을까.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을 한 명의 독자로써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작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운명 같은 순간을 엿보게 될 것이다./